

# 2025 광주체육 빛낸 '별'들…“여러분이 진정한 영웅”

## 광주시체육회 '2025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 성료

‘광주세계양궁선수권 성공 개최’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특별공로상  
고광구 광주시청 역도 감독·홍혜선 광주체고 핀수영 지도자 ‘올해의 상’  
수피아여고 농구부·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올해의 단체’ 수상 영예

광주시체육회가 올해 광주를 빛낸 체육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병오년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광주시체육회는 9일 오후 2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체육단체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육성팀 단체장 등 광주 체육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5 광주체육이 보여준 역량을 확인하고 2026 새로운 광주체육 비전을 공유한 이날 행사는 광주시장 표창, 광주시의회 의장 표창, 광주시교육감 표창, 미래상, 올해의 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체육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특별공로상은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수상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광주양궁을 이끈 체육계 여성 원로로 올해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원, ‘양궁 메카’ 광주 브랜드 제고 등 양궁 종목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의 상도 수여했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전갑수 광주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의 단체는 수피아여고 농구팀과 광주시야구 소프트볼협회가 선정됐다.

올해의 감독에는 전국체전 역도 3관왕을 배출한 고광구 광주시청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에는 한국주니어신기록을 달성한 신재이를 지도한



2025 광주체육을 빛낸 올해의 상의 수상자들. 왼쪽부터 김명희 수피아여고 농구부 감독, 고광구 광주시청 역도팀 감독,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홍혜선 광주체고 핀수영 지도자, 손현호 광주시청 역도 선수

체육회 지도자가, 올해의 동호인에는 유연술(광주시체육회) 씨가 선정돼 각각 수상 받았다.

역도 손현호는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록을 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클럽에는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 및 참여 확대, 특히 클럽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을 인정받아 동강공공스포츠클럽(회장 최희관)이 선정됐다.

생활체육 부문 올해의 지도자는 임은자 북구

육감 표장에 성자영 광주체고 레슬링 감독 교사 등 12명이 선정돼 표장장을 받았다.

광주시체육회 및 회원단체에 물심양면 지원(후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기관) 중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 등 10곳이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 밖에도 광주시장 표창에 이명식 목동산업 개발(주) 대표 등 13명, 광주시의회 의장 표창에 이현식 에이스승마클럽 대표 등 13명, 광주시교

육감 표장에 성자영 광주체고 레슬링 감독 교사 등 12명이 선정돼 표장장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올 한해 각자 위치에서 애써주신 광주 체육인들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번거울 정도로 값진 성과들이 많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빛나는 광주체육, 특히 제주 전국체전에서는 10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KIA는 '빈손'…2025 골든글러브 영광의 얼굴들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하구연 총재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손혁 한화 이글스 단장, 박준혁 롯데 자이언츠 단장, 구자욱, 노경은, 박해민, 염경엽 감독, 신민재, 김주원, 최형우, 하구연 총재, 양의지, 송성문, 안현민. /연합뉴스

## “기회 주셔서 감사…잠재력 보여주고 싶어”

### 아시아쿼터 대체 소방수로 정관장 유니폼 입은 목포과학대 인쿠시



‘신인감독 김연경’에서 김연경 감독과 함께한 인쿠시(오른쪽)

〈인쿠시 인스타그램 캡처〉

“큰 기회를 주신 팀과 고희진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관장 입단으로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도전하면서 제가 가진 잠재력과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자프로배구 정관장의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로 V리그 데뷔를 앞둔 몽골 국적의 자미얀푸 렙 앵호서열(20·한국 이름 인쿠시)은 9일 자신이 꿈꿔왔던 한국 프로배구 선수로 첫발을 디디는 각오를 담담하게 전했다.

인쿠시는 지난 4월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된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국내 구단들의 낙점을 받지 못했으나 정관장이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 물색에 나서면서 기회를 잡게 됐다.

인쿠시는 키 180cm로 점프 타이밍이 빠르고 폭발력이 돋보이는 선수다.

현재 목포과학대 1학년인 인쿠시는 2022년 목포여상으로 배구 유학을 와서 작년 소속팀의 전국체전 준우승에 앞장섰다. 올해에는 목포과학대 주전으로 뛰며 한국대학스포츠협회 U-리그에서 득점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연경이 감독을 맡은 배구 예능 프로그램인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외인부대’ 필승 원더독스의 주전 공격수로 주목받았다.

특히 김연경 감독의 지도를 받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김연경 애제자’로 인기를 끌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희망했던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는 V리그 경기에 뛰려면 비자와 국제적 동의서(IJC) 발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유학 비자 대신 취업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고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IT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3~4월부터 뛸 수 있

을 전망이다.

인쿠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V리그에 뛸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기분이 좋다”면서 “(원더독스 소속으로 뛸 때) 지난 (맞대결)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 고희진 감독님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실제 프로 무대에서 더 집중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전남도청 우수팀 김민수·장민규 내년 아이치·나고야 AG ‘청신호’

###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각각 1, 2위

전남도청 우수팀 김민수, 장민규가 내년 아시안게임 태극마크 청신호를 켰다.

김민수는 지난 8일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우수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산타 -60kg급에서 1위에 올랐다. 투로 태극권전능에 출전한 장민규는 2위를 차지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김민수는 준결승에서 강지현(부산 태극무술관), 결승에서 강희준(충북 비룡관)을 각각 2대0으로 제압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장민규도 투로 태극권전능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2위에 올랐다. 장민규는 태극권 9.65, 태극권 9.71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최종 합산에서 안현기(충북 개발공사)에게 근소하게 뒤져 2위로 1차 선발전을 마쳤다.

1차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탄 김민수와 장민규는 내년 3월 열리는 2차 선발전에서 최종 출전권에 도전한다.



산타 -60kg급 김민수 경기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한편,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우수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전국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등 인프라를 적극 지원한 해남군의 스포츠 행정과 따뜻한 남도의 정으로 전국에서 찾아온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아 준 군민들의 응원이 돋보여 성공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박희중기자

## ‘천재소녀’ 김은지, 세계대회 첫 우승

### 오청원배 최종국, 최정에 불계승

한국 여자 바둑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18) 9단이 드디어 세계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은지는 9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에서 열린 제8회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결승 3번기 3국에서 최정(29) 9단에게 22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종합 전적 2승 1패를 기록한 김은지는 2020년 입단 이후 처음 세계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12월 한국 여자랭킹에서도 최정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김은지는 그동안 국내 대회에서는 9차례 우승했지만, 세계대회에서는 결승에 오른 것도 처음이었다.

최정 3국은 초반 포석에서 흑은 실리, 백은 세력으로 균형을 이뤘다.

세 귀를 먼저 차지한 김은지는 좌변 백 세력에 뛰어든 뒤 맥점을 짚으며 깔끔하게 타개에



첫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한 김은지 9단 〈한국기원 제공〉

성공해 단숨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불리해진 최정은 우상귀에서 변화를 모색했으나 김은지는 침착한 응수로 집 차이를 벌리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패색이 드리운 최정은 이후 100여수 동안 반전을 노렸지만 역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결국 돌을 던졌다.

우승 상금은 50만위안(약 1억4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0만위안(4천160만원)이다. /연합뉴스